

‘재정위기’ 남구청 한심한 예산 낭비

종이 안 붙는 신형 가로등에 불법광고부착방지 ‘헛돈’

재정 파탄 지경에 이른 광주시 남구청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등 기둥과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장치를 설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남구청은 이미 광주시가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부착 방지 장치를 설치한 일부 가로등 기둥에 다시 똑같은 기능의 시트지를 덧씌우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달 초부터 서문로·대남로·봉선로·중앙로 등 14개 구간에 있는 가로등·전신주·신호등·이정표 기둥 등 모두 2870개에 해당 25만원을 들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용 시트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만 모두 6억9500만원에 이른다. 남구청은 900여개의 가로등에 시트를 씌우는 작업을 마쳤으며, 오는 8월까지 부착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남로·중앙로 등 가로등에는 이미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광주시가 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형 가로등에는 이미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돼 있는데도 남구청이 그 위에 시트지를 씌워 예산 낭비는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며 “시트지를 씌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장치가 설치된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이 있는 200여개 신형 가로등의 시트지를 벗겨내 구형 가로등에 옮겨 부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이 있는 광주시 남구 대남로 가로등 기둥에 같은 기능을 하는 시트지가 덧씌워져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주 광주시로부터 신형 가로등에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설치할 때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영호 남구청장 당선자는 지난 27일 ‘남구청 부속채권 274억으로

사실상 파산위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10년 하반기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급여자 지출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9월부터는 공무원 급여마저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심장질환 사망자 15년만에 2배

전남대병원 분석 자료

전남 10만명당 33.6명

광주·전남지역에서 심근경색·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대병원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발간한 ‘광주·전남 심뇌혈관 질환 사망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이 지역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자수는 1993년 408명에서 2008년 926명(126% ↑)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조사망률) 사망자수도 1993년 광주 7.8명, 전남 13.8명이었던 것이 2008년 광주 19.7명, 전남 33.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전국 평균은 1993년 12.5

명, 2008년 25.7명으로 광주는 조사 시점마다 평균치에 비해 낮았으나 전남은 고령인구가 많은 탓에 평균치를 웃돌았다.

지역 간 인구구조(고령화율 고려)의 차이를 조정한 표준화 사망률을 보면, 광주는 2008년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였으며 전남은 14위를 차지해 다른 지역보다는 낮았다.

이와 함께 2005~2008년 광주·전남지역 시군구별 표준화사망률은 광주 북구·진도·담양·목포·광주 동구가 높았으며, 완도·함평·구례·화순·장흥은 낮게 나타났다.

뇌출혈·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전국 사망자수는 1993년 272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2년 3022명으로 증가한 뒤, 다시 감소해 2008년 2226명을 기록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 금물살

정갑주·이상훈씨 물망

대법원이 28일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새 대법관 인선 작업이 금물살을 타게 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자문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 양승태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10~12기 중에서 새 대법관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10기에서는 이상훈(54·광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진성(54·부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11기 중에서는 고영한(55·광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병현(55·경북) 부산지법원장, 박삼봉(54·부산) 전주지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기수 안배만 놓고 보면 대법관을 아직 배출하지 못한 9기 중에서 신임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9기 중에서는 정갑주(56·강진) 광주고법원장과 김이수(59·정읍) 특허법원장 등이 후보군이다.

다만, 김 대법관이 첫 여성대법관이라는 점에서 14기인 조경란(50·목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편, 대법원은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 대상은 법조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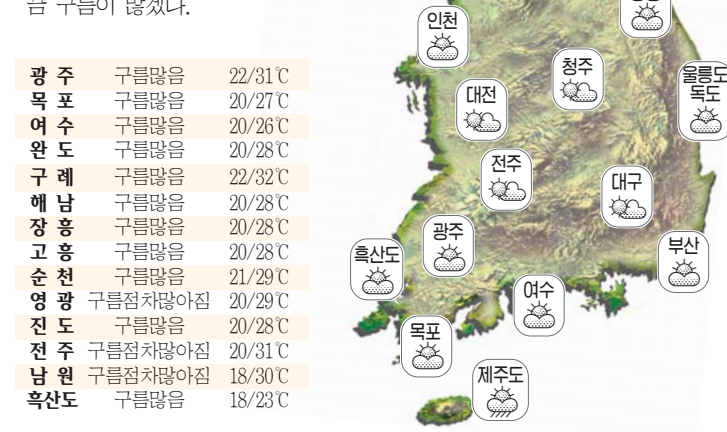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1분 해질 19시 51분 달돋이 21시 40분 달질 07시 42분

후텋지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름량	22/31℃
광주	22/31℃
목포	20/27℃
여수	20/26℃
완도	20/28℃
구례	22/32℃
해남	20/28℃
장흥	20/28℃
고흥	20/28℃
순천	21/29℃
영광	20/29℃
진도	20/28℃
전주	20/31℃
남원	18/30℃
옥산도	18/23℃

종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보통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보통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보통	경고	낮음

구름량	22/31℃
광주	22/31℃
목포	20/27℃
여수	20/26℃
완도	20/28℃
구례	22/32℃
해남	20/28℃
장흥	20/28℃
고흥	20/28℃
순천	21/29℃
영광	20/29℃
진도	20/28℃
전주	20/31℃
남원	18/30℃
옥산도	18/23℃

날짜	30(수)	1(목)	2(금)	3(토)	4(일)	5(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2/31	22/31	22/31	21/30	21/28	21/27

마른장마 ... 흐리다 휴일에 비

광주·전남지역은 29일부터 비 없이 흐리다가 휴일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도~2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32도로 전남보다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기상청은 다음달 3일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4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간첩·안보사범 및 국제범죄 신고는 111

승려스 개인여행: 5월 31일부터 최신행 관광버스

1인1실	150,000원(주말) / 160,000원(주말)
2인1실	104,000원(주말) / 110,000원(주말)

승려스 여행: 5월 31일부터 최신행 관광버스

1인1실	150,000원(주말) / 160,000원(주말)
2인1실	104,000원(주말) / 110,000원(주말)

2010 여름 바캉스 국내 여행 상품 (최상수기 요금인상)

2010년 7월 1일 - 8월 30일 출발!! 이제 국내 여행은 섬투어와 함께 하세요! 좋은 일정 - 저렴한 가격

여행 상품	가격
광주-제주 왕복항공	259,000원
제주-제주(선산항) 쾌속선 여행	179,000원
울릉도 2박3일	112,000원
홍도/흑산도 1박2일	179,000원
거문도/백도	93,000원